

權氏列傳 죽치 권애라 (竹稚 權愛羅 추밀공파 34세) 제4편

‘분단과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 산하에 내가 다시 봄이 오게 하리라!’



북해공원 (북경만수산) 심이잠잡 권애라, 김시현 1940년대.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2묘역에서 손녀 김영방.



1925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

내 항상 그리던 남  
허리적인 남이 시여  
흐르는 피강산에 즐쩍  
끊어진 남의 허리  
내가 이어 놓으리

죽치 권애라

이것은 일제의 강점과 독립운동, 분단과 전쟁, 독재와 민주 투쟁의 격변의 시기를 살다간 신여성 권애라가 남긴 진솔한 분단조국에 대한 ‘한마디’이다. 여기서 ‘남’이란 코리아 민족을 의미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가 태어난 교동의 북쪽 조강(漕江, 漕江)은 그 엄혹한 60년 간에도 진정한 ‘비무장 지대’로 남아 있다.

지난 4.27. 판문점의 감동이 바로 그런 ‘죽치’의 뜻일 것이다.

실제 ‘죽치’가 해방 이후 60년 4.19 후 김시현 출옥까지는 별다른 활동이 드러난 것이 없다. 오로지 남편 김시현을 도와 두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1966년 김시현 선생이 서세 할 때 까지 그를 보필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전력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정도로 살았다고는 보지 않으며, 각 사회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이 땅을 위한 상당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1966년 1월, 독바위 가옥(이 집은 박정희

가 김종필을 통해 전달한 80만원으로 60년대 초반 조성)에서 김시현 선생의 마지막 말 “권동지! (평생 부인 권애라를 동지라 불렀다.)미안하오. 내가 조국독립을 위해 몸바쳐 투쟁 했는데, 반쪽 독립밖에 이루지 못했소. 남은 생은 조국통일사업에 이바지해주오”라고 했고, 죽치는 이를 충실히 이행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출마와 김도연과의 연계문제 등 더욱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1967년 ‘한국독립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70 고령은 무명이 더 있을 뿐이다. 당시 7대 의원 지역구 당선 139명중 60세 이상은 13명, 40대가 73명이고 후보자중 최고령은 죽치 보다 1살 위인 두 사람(김성숙, 임여순)이 있을 뿐이다. 후보자중 여성도 자유당 김옥향(41세), 신민당 김옥선(33세)과 죽치 세사람이고 당선자는 김옥선이다.

안동이라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최고령 여성으로서 출마한 것 만으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는 박정희 2기로 ‘잘살아보세’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안동이 정권의 혜택을 받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만일 그 공화당 김대진(4년간 무발언으로 유명하고, 딱 한번 ‘식사하고 합시다.’라고 해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았다는 유명한? 일화를 지닌 자)대신 권애

라가 사퇴(납치)당하지 않고 당선이 되었더라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며 ‘안동의 거대한 자랑’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독립당’ 당선자는 역대에 제헌의원 김영기와 6대 김두한인데 김영기는 이승만계 독촉(獨促)이었고 김두한은 보결선거이니, 만일 죽치가 당선되었다면 한독당 최초 여성 당선자이며, 최고령의 기록을 남겼을 것이다. 안동에 임영신(女)이 무연고로 출마하여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당선된 것과 최초의 여성장관이 뽑은 또 우연이 아니다. 이는 안동 서후면 開田寺 아래, 광평리(가야리)에 2000년전 고조선의 후에 ‘시애’라는 여성의 ‘여인국’이 있었다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 법도 하다.

각설하고, 1967년 이후 권애라는 서세 할 때 까지 ‘3.1여성 동지회’ 활동을 하였고, 특히 김희로(金禧老)사건이 1968년에 일어나자 이를 통하여 그를 구명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한 사실이 있다. 이 권희로 사건은 ‘금의 戰爭’으로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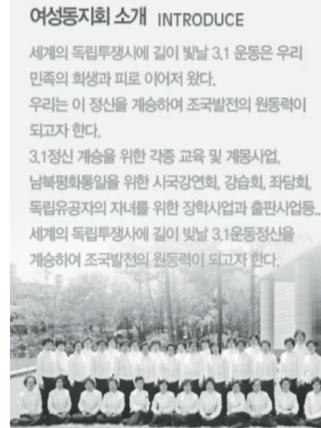
● 3.1여성동지회: 1967년 황애덕 여사를 회장으로 창립된 3.1정신의 구현을 위한 단체. (<http://31women.org/>) 1996년 권애라의 아들 김봉년이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 김희로 사건: 본명 권희로(權禧老, 1928년-2010년, 父 權命述, 母 朴得淑), 1968년

재일교포에 대한 명시에 항거 아쿠자 2명 사살, 그리고 인질사건의 주인공, 이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지만 당시는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건.

이제 죽치 선생의 ‘평생도전과 의협’으로 살아온 호연지기의 일생’을 끝으로 고찰하면서 그 마무리를 짓고자 하며, 그의 삶을 기리고, 그가 남긴 정신이 다시 후손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여 같이 전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 굳게 믿는다.

(글: 권경민)



3.1여성동지회 소개글

宗說

權門의 단합과 명예를 위하여

이제 새로운 대종회 출범 한 돌을 맞이한 감회는 새롭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는 시점이다.

달포 전, 폭우 속에서도 의연하게 ‘제30회 안동권씨청장년 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친 주최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있으면 대종회의 연례 행사인 2018년 정기총회가 5월30일에 열렸다.

지난 1년은 대종회의 정지 작업을 한다고는 했으나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정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경영합리화로 가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5월30일 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대로, 무엇보다도 단합된 權門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권문의 명예에 금이 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변 6.13 선거에서 정치적 판단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지역과 종파에 치우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폄하하는 일은 지양해야함은 민주시민의 절대적인 기본 자세이다.

다만, 안동 권씨의 분향 安東에서 권문의 후보간에 대립하거나 비방하여, 타 성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 되든 이에 승복하는 권문 다운 태도가 필요하며, 사전에 특정인을 비호하고 권문의 의견이라 내세우는 경솔한 언동을 한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현행법에도 저촉되는 것이다.

우리 권문은 누가 뭐래도 양반이라 지칭 받고 있으며, 그 양반이라는 말은 정당하며, 불편부당하고 청렴한 ‘젠들맨’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만일 權門이 단합하지 않고, 승복

하지 않고 비겁한 행위를 하여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타인의 지탄을 받는다면 이는 권문의 이름으로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 타인이 우리를 양반이라 함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는 말일 진데, 추잡한 이진투구(泥田鬪狗)를 벌린다면 누가 다시 권(權)을 보고 군자이며 양반이라 하겠는가?

만일 이와 같은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어 타인의 타기(唾棄)를 받거나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상납하는 우둔한 결과를 가져 온다면? 그것을 일으킨 장본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비난과 응징이 대대(代代)로 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권문의 단합은 비록 내부적으로 이리나 저리나 해도 ‘대중보’를 비롯하여 그 위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곧 <권문 정신 박물관>, <권씨 테마 관광 사업>, <권애라 기념사업회>, <조장시 권현비릉도 한류타운 프로젝트>등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그것은 더욱 확연해 질 것이고 그 자부심은 우리의 가슴을 매우 뿌듯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5월30일에 열린 <2018년 정기총회>에서는 단합되고 화평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으며, 더 나아가 6월13일 권문의 분향 安東의 으뜸 일꾼의 선출에 있어서 누가 되든 지 간에, 단합되고 공명하고 자랑스런 결과를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100만 족친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니 우리 모두 이를 위해 노력하자!

(편집위원 권오철)

4자성어

未可與權

조명부체

‘미가여권(未可與權)’, ‘논어·자한(子罕)’ 편에 ‘可與共學, 未可與適道. 可與適道, 未可與立. 可與立, 未可與權’이라 나오니, 이는

함께 배울 수 있어도 함께 도(道)로 나아갈 수 없고, 함께 도로 나아갈 수 있어도 함께 설 수 없으며, 함께 설 수 있다고 할지라도 ‘권’을 함께 할 수는 없다.

학(學), 적(適), 입(立), 권(權)을 동학(同學), 동도(同道), 동립(同立), 동권(同權)으로 개괄하면

곧 함께 진리를 배우고 추구하며, 진리를 견지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4 단계는 순서가 뒤로 갈수록 더욱 높고 어렵다.

가장 쉬운 첫 번째 학도(學徒)로부터 두 번째 단계인 적도(適道)는 약간 어려워진다. 세 번째 단계는 함께 진리를 견지하는 수도(守道)인데 조금 더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마지막 단계인 용도(用

道)인데 진리를 운용(運用)하는 동권(同權)이다. 진리는 마땅히 운용되어야 하는데 왜 가장 어렵다는 것인가?

이는 단순히 운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融通性)’이 있는 운용’이 어렵다는 말이다. 이것이 ‘권(權)’, 바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有經有權)이다.

朱子(朱子)는 ‘權의 哲學’을 논하면서 ‘經是已定之權, 權是未定之經(원칙은 이미 정해진 변칙이요,

변칙은 정해지지 않은 원칙이라.)’라 했다. 이 권은 매우 중요한 유교의 아젠다이다.

反經行權, 反經合道, 舍經從權, 舍道用權의 용어로 회자되며, 시조님의 諱도 權幸(권력에 붙어 변화하는 행위)이라기 보다는 權行(高麗史에 기재)으로 反經行權의 의미가 강하다.

‘원칙을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사심과 조건 없이 ‘行權’ 함은 곧 經(原則, 道)에 맞다는 것(反經合道)’이다.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b>&lt;본사&gt;</b>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b>&lt;동부지점&gt;</b>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b>&lt;강원지점&gt;</b>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	--	---

SMU

세명 100년의  
대기강정을 향한  
도전과 혁신!

KD 온송그룹

경기도속 대원고속 대원여고 대원중고 대원고등 대원여대 경기버스 경기고수 경기상운 대원대학교  
대전충주 대전여고 대전충주 경기여고 경천여대 세종고등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종대학교

SMU 세명대학교 주소: (271361)충북 제천시 세명로 66(산정동) 입학문의: 042-920-6100-6101-6102-6103 홈페이지: www.semyung.ac.kr